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여수엑스포 특별법’ 만든다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해수부, 계획안 확정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박람회 운영 조직 구성 및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박람회 부지 내 크루즈 전용 부두가 건설되고, 순천~여수 전철화 및 엑스포 역 신설을 통해 박람회장까지 광역 전철 및 고속철도가 운행된다.

〈관련기사 3면〉

해양수산부는 15일 오후 청사 회의

실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여수 엑스포 개최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해수부가 마련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박람회 유치 조직, 지원시설 및 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2 세계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성격,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박람회 참가자의 편의

를 위해 항만·공항 등에 박람회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는 한편, 필요시 박람회 조직위 보증에 의한 무비자 입국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를 특별보세지역으로 지정, 박람회 전시 사용 물품의 비과세 조치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교통 대책으로 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면 여수공항 활주로를 2.1km에서 2.5km로 확장하고, 박람회 부지 내에 크루즈 전용 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장까지 고속전철 및 임시 열차를 확대 운

행하고, 순천~여수간 전철화 사업 및 엑스포 역 신설 등 고속철도 및 광역전철 운영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신교통 수단으로 오토도와 크루즈 부두를 시·종점으로 하는 모노레일을 도입, 박람회장의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를 미래형 관광·스포츠·레저 포트(port)로 개발, 남해안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람회장 인근에 엑스포 타운(빌라 900실, 아파트 3천 600실)을 건설, 참가자에 제공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남 화원단지 내년 개장

관광공사 집중투자...골프장·해수욕장 등 먼저 열려

지난 1993년 기본계획이 세워진 이후 10여년 이상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해남 화원관광단지가 한국관광공사의 집중 투자에 따라 일단 내년 2008년 부분 개장된다. 그러나 화원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인 민자 유치 부분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지

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개장과 사업의 조기 완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국관광공사의 ‘해남 화원관광단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83억원(관광공사 257억원, 지자체 94억원, 수자원공사 32억원)이

투자됐던 화원관광단지 사업에 올해도 1천567억원(관광공사 445억원, 지자체 129억원, 수자원공사 35억원, 민자 9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2008년에는 2천926억원(관광공사 602억원, 중앙정부 31억원, 지자체 65억원, 민자 1천948억원)이 투입돼 기반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해남 화원관광단지의 전반적인 골격이 형성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2006년 이전까지 연간 수십억원 정도만 투자해 화원관광단지 조기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2008년 상반기 중 화원관광단지 가운데 골프장(27홀), 해수욕장(화이트 비치), 플라워 파크 등 일부 시설을 우선 개장할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올해 기반조성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 데다 화원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조만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시범 사업에 편입될 전망이다여서 기업들의 투자 심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나설 계획이다.

고종화 관광공사 서남지사장은 “기반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지역 기업들은 물론 수도권 기업들도 투자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개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오는 2009년과 2010년에 해남 화원관광단지에 각각 2천21억원, 2천44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154만 평의 부지에 동·식물원과 민속촌, 복합상가 등 단순 숙박위주의 관광형 형태에서 시작된 해남 화원관광단지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변경, 펜션단지과 별장촌, 전시훈련센터, 플라워파크, 마린월드, 씨-월드 등 체류·체험형 남도 해양리조트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화원관광단지가 들어서는 해남 화원반도 전경. 사진 윗부분 파헤쳐진 부분이 관광단지 조성 공사장이다. 관광공사는 기본계획 입안 이후 10여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화원관광단지를 오는 2008년에 일단 부분 개장할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주식펀드 양도차익 3년 비과세 부동산투자 300만달러로 확대

정부, 해외투자 확대 방안

국내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또 다음달부터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에 대한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는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의회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매매)차익의 분배금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국내주식과의 평형성 문제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펀드 등

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도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5억1천400만달러(1천268건)로 전년의 57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비보이 전국대회 10월 광주서 연다

내년엔 세계대회 개최

비보이(B-Boy) 전국대회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15일 청소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대중예술 유형인 비보이 대회를 광주에서 개최, 광주를 세계 청소년 문화 교류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키고 동시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콘텐츠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비보이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강력한 국제적 문화콘텐츠인 비보이 분야를 광주지역 문화산업 콘텐츠로 집중 육성, 국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비보이 전국대회가 성공할 경우, 대회의 정기 개최는 물론 2008년 이후 비보이 세계대회를 개최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계산이다.

/채희중기자 chae@

▲비보이(B-Boy)=브레이크댄스를 추는 남자(Breakancing boy)를 뜻하며, 브레이크댄스를 넘어 힙합 스타일까지도 포함시키는 춤 장르중 하나이다.

광주·전남 미지급 의료급여 1,100억 이달 말까지 지급

3개월 가까이 미지급되고 있는 정 부지원 의료급여액이 이달 말까지 지급 될 예정이다.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비용이 광주·전남지역만 1천100여억원이 체납되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12일자 1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

안 미지급된 의료급여를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작년 10월 하반기부터 광주지역 병·의원 및 약국에 기부금 300억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키로 하고, 여기에 시 부담금 60억원을 포함해 총 360억원

의 의료급여를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입금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도 “전남지역 병·의원들에게 미지급된 전남지역 의료보 호 수급대상자 16만여 명분의 2개월분의 의료비 750여억 원을 1월 지급액과 함께 이달 20일을 전후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작년에 체납된 의료급여를 올해 예산으로 집행키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가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Enjoy the Quality
남양유업

아기를 위한 절대적 안전- 「사카자키균 0%」

아무리 어려워도 남양유업은 반드시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사카자키균 0% 성공의 쾌거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사카자키균은 물론 어머니들이 노심초사 하시는 그 어떤 이물질이라도 「100% 보상 품질보증제」로 책임지겠습니다. 최고 품질을 향한 최고의 자신감 - 남양의 품질혁신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 1 콩이나 물, 사탕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생산 공정의 철저한 관리로도 잡기 어려웠던 사카자키균 - 그러나, 국내외 여러 유아식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나왔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 2 대한민국 유아(공형체) 1위 기업으로서 지대한 책임과 자신감으로, 남양유업이 마침내 아기의게 공급한 사카자키균을 완전히 없애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www.namyang.com) 이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술규. 선비투자도 이뤄낸 세계적인 쾌거입니다.

최대치 품질혁신이 될 사카자키균 0% - 남양유업이 작아서 없애는 그 기술과 노력만큼 상식적 기준치도 도전했습니다

- 항균력 100배 이상인 대안제 사용 / 철저한 관리 / 철저한 검사
- 대안제 100배 이상 사용 / 철저한 관리 / 철저한 검사
- 철저한 품질관리 / 철저한 관리 / 철저한 검사
- 철저한 품질관리 / 철저한 관리 / 철저한 검사

관해하지 않으면 남양의 이름값 허락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남양유업의 유아식 이라면 완벽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보람유업이 생산하는 아기식품*에서 사카자키균이나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100% 보상을 드립니다. *유아식

100% 보상 품질보증제

문의전화: 서울 02-2200-1111 / 1111, 부산 051-2200-1111, 대구 053-2200-1111, 광주 062-2200-1111, 대전 042-2200-1111, 울산 052-2200-1111, 인천 032-2200-1111, 경기 031-2200-1111, 강원 033-2200-1111, 충청 041-2200-1111, 전북 063-2200-1111, 전남 061-2200-1111, 경북 054-2200-1111, 경남 055-2200-1111, 제주 064-2200-1111

www.namyang.com